

봉사하는 삶

- 이탈리아 주교회의 상임위원회의 메시지

자녀들은 나라의 재산입니다.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자녀들이 받는 사랑과 관심은 그들의 수와 더불어 한 나라의 미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열린 삶을 살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노인들은 우리 사회의 기억이자 뿌리이며 노인 존중과 그들에 대한 배려는 성숙한 사회의 척도가 됩니다.

삶의 첫걸음, 마무리를 향한 삶. 문화사회는 봉사하는 삶의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일 중요한 이는 부모입니다. 자녀를 임신한 순간, 모성애와 부성애에서 비롯한 책임감이 없으면 낙태의 비극을 이해할 수 없으며 피할 수 없습니다. 책임감이란 자녀들이 부모의 바램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나온 객체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독립적 주체로 성장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자유와 책임으로 자신의 삶을 자기의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봉사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불행스럽게도 자신만을 위하는 삶이 우리 주위에 만연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권리를 요구한다면 도덕적으로 받아드릴 수 없는 값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 자신의 권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녀는 언제나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어떻게 사람에게 대해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까? 자녀는 희망이자 기쁨의 기다림이지 어른들이 소유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에 자기 자녀를 간절히 키우기 바라면서도 그럴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들을 곁에서 지켜보며 다른 가능한 형태의 엄마와 아빠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양이나 대리양육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에 사랑의 만남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모성애와 부성애는 타인을 위한 봉사와 수 많은 형태의 기여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봉사하는 삶이란 일터나 길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는 것을 뜻하진 않습니다. 삶이란 그 자체로서 값진 것입니다. 병들거나 늙어서 기력이 쇠하고 의식을 잃어가는 이들의 삶 모두도 값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생명의 가치가 없다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가족 스스로는 이런 상황을 받아드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만 합니다. 비탄에 빠진 고통스러운 삶을 쉽게 끝낼 수 있는 방법에만 정열과 논의를 쏟아 붓는 것에 놀라웁니다. 완화치료법이나 세상에 처음 나온 아기처럼 사랑 받고 고통 없이 홀로 남겨지지 않으며 죽음에 다가가거나 삶을 이어가고 싶은 바램은 인간존엄성에 근거한 진정한 해결방법입니다.

이 모두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선택한 모든 이에게 우리 모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소유의 사랑이 아닌 애타적이고 책임감 있는 부모님들에게 감사합니다. 부모님들과 함께 여러

본 자녀의 성장을 돕는 사제, 수사, 수녀, 선생님과 수 많은 어른 그리고 빠질 수 없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에게 감사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식을 포기하거나 극단적으로 죽이기까지 하는 이들에게 부모의 근본적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부모들을 돕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사회기관의 책임자들에게 감사합니다. 아이가 태어날 수 있도록 성심껏 돕는 산부인과 의사, 조산사, 간호사들에게 감사합니다. 낙태의 고통스러운 발걸음을 하는 산모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바꾸어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하고 사라질 뻔한 아이가 태어나도록 돕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합니다. 가정에 노인들을 모시고 지내는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헌신적으로 노인을 돌보는 여러 국적의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과거를 존중하고 밝은 미래를 바라는 나라의 일원으로 신뢰와 책임으로 봉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이탈리아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2007년 10월 2일, 수호대천사를 기억하며, 로마에서